

적정한 대가

Reasonable Service Fee

글. 임형남 · 본지 편집위원

얼마 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설계감리비 적정지급에 대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내용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 보장을 위한 적정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고, 민간 발주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대가’라는 말에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건축사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전문직 종사자이며, 설계의 대가로 설계비를 받습니다.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는 것처럼 아주 당연한 일이지요. 또한 대가는 적정해야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아주 애매합니다. 예전에는 공사비에 의거한 설계요율이라는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서 이에 따라 설계비를 책정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거래로 판정하는 바람에 사라지고 이후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건축사법 개정안도 공사비에 의한 적정한 요율을 제시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는 많이 받고 어떤 이는 적게 받습니다. 동네의 기준이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전의 기준으로 설계비를 청구해도 “어떤 사무실은 훨씬 적게 받는데...”하며 비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은 자력갱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공사비에 대한 비율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혹은 실행내역을 뽑아서 외주비는 얼마이고 설계기간 동안의 인건비는 얼마이고 결과물은 어떻게 하며 계산된 설계비를 내밀기도 합니다. 평당 얼마하며 대충 정해진 기준으로 설계비를 책정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간혹 "종이가 몇 장 들어간다고....."하는 불만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설계비가 종이 값으로 환산되는 현실에 허탈해지곤 합니다. 사실 설계비를 종이 값으로 환산하는 분들이 간혹 그깟 액자가 얼마라고 그깟 물감이 얼마나 들어갔다고 얼토당토 않는 비싼 그림을 사기도하고 심지어 A4용지 몇 장이나 쓴다고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 분들은 화가나 변호사에게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탓하기 이전에 문제가 무얼까 혹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 받는 건축사에 대한 존경은 고사하고 적당한 예우조차 우리는 받기 힘들까?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대우해주기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직능에 대해 자부심이 있어야하고 그런 긍지에 걸맞은 훌륭한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당하긴 하지만 무척 막연한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적정 설계비는 얼마일까? 적정 설계비는 그 일에 공을 들인 만큼 가치를 부여한 만큼 받는 것일 겁니다. 스스로를 올리고 스스로의 작업에 권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에 정성을 들여야 하고 일을 얻어내기 위해 과잉경쟁, 출혈 경쟁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주를 위한 ‘가설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획설계 단계에서 이미 규모나 법규에 대한 검토가 다 이루어지고 핵심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사전에 대가도 없이 제공하다보니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이것은 ‘진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당하게 일을 하고 정당하게 설계비를 청구합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설계대가 기준을 타당하게 다시 만들고 사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 건축사의 권위를 세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